

‘관광 해남’ 도약 위해 웰니스·힐링 테마 킬러콘텐츠 만들자

‘해남군 관광발전 포럼’ 어떤 이야기 나왔나

5단계 토탈힐링 관광·올돌목 ‘실경 오페라’ 공연 제안
‘인문학 여행 일번지’ 만들기 중장기 발전전략 적극 추진

“해남관광 발전을 위해선 매력적인 킬러 콘텐츠를 찾는게 필요합니다.”

10일 고산 윤선도 유적지에서 열린 ‘해남군 관광발전 포럼’에서 문창현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웰니스(wellness)와 힐링(healing)을 테마로 한 3대 킬러콘텐츠 개발해야 한다”며 해남만의 차별화된 관광 매력물을 통한 해남관광 킬러 콘텐츠의 개발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 연구원은 구체적인 추진과제로 최근 관광객 선호도 및 시장 트렌드 상황에 부합하는 유일무이한 해남 특화 명품관광의 육성을 목표로 5단계 토탈힐링 관광 오감만족 프로젝트와 우수영을 배경으로 한 실경오페라 개발, 휘게(Hygge)형 인문학 여행상품 개발 등을 꼽았다.

5단계 토탈힐링관광은 고산유적지-인문학 힐링 테라피와 이마도 미술관-아트힐링 테라피, 달마고도-자연힐링 테라피, 치유밥상-푸드힐링 테라피, 땅끝전망대-기충전 힐링 테라피 등으로 오감만족 프로젝트를 통해 삶의 희망과 활력을 재충전 해주는 ‘리프레시(refresh) 해남’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명량대첩 승전지인 우수영 올돌목을 수변 무대로 수상 뮤지컬인 해남판 실경(實

- 5단계 토탈힐링 관광은
- 인문학 힐링 - 고산유적지
- 아트힐링 - 이마도 미술관
- 자연힐링 - 달마고도
- 푸드힐링 - 치유밥상
- 기충전 힐링 - 땅끝전망대

경) 오페라를 공연하자는 제안도 눈길을 끌었다. 실경오페라의 대표작품인 중국 장예모 감독의 ‘인상’시리즈를 모티브로 난중일기를 테마로 한 해남형 대형 퍼포먼스 연출을 기획, 명량대첩제 기간중 시범 공연해 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해남을 세계적 추세인 휘게형 인문학 여행의 일번지를 조성하자는 계획도 제시했다.

해남이 가진 풍부한 인문학적 유산을 관광자원화해 남도답사 여행의 명가로서 해남의 명성을 회복하고 현대인들에게 정서적 만족을 제공하는 인문학 여행의 새로운 메카로 조성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와함께 ‘국내외의 관광환경 변화와 해



지난 10일 고산 윤선도 유적지에서 관광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문화예술단체와 요식·숙박업 종사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남관광의 발전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해남군 관광발전 포럼’이 열렸다. <해남군 제공>

남관광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심원섭 목포대 교수는 “해남 관광의 기본 방향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땅끝’의 이미지를 대신해 해남군을 대표할 만한 키워드 추출이 급선무”라며 감성 체험 여행시대를 선도하는 힐링 여행의 이미지로 ‘healing full of 해남’을 제안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박종찬 광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호열 트레블아이 대표와 이종원 여행작가협회 회장, 김규람 아트앤컬처 랑가 대표 등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가해 해남관광 발전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토론을 진행했다.

해남군은 이번포럼을 통해 제시된 과제

들을 해남군 중장기 관광발전전략으로 군정에 반영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모색해 군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난 3월 관광분야 전문가 11명을 초청해 해남 관광의 여건을 분석하고 가능성을 진단하는 현지답사를 이틀 동안 진행하기도 했다.

최성진 해남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포럼을 통해 해남군 관광의 명확한 현실을 되짚어 보고 장기적인 발전 전망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해남관광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지난해 열린 ‘2017 명량대첩 축제’에서 이순신 장군의 조선 수군 13척이 왜선 133척을 상대로 승리한 명량해전의 신화가 재현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28일 제1회 달마고도 걷기여행 축제 미니콘서트·명상음악회 등 행사 다채

오는 28일 해남군 달마산 일원에서 ‘제1회 달마고도 걷기여행 축제’가 열린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돌 하나하나 지게로 날라 사람의 손으로 길을 닦은 달마고도의 이번 걷기행사는 숲속 미니콘서트와 명상음악회, 도보여행 테마강연 등이 결집된다. 또 나무 명패 만들기 체험, 현장사진인화 서비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1박 2일 팸투어도 진행한다.

달마고도는 빼어난 산세와 다도해의 절경이 어우러진 해남 달마산에 조성된 17.74km의 둘레길이다.

땅끝마을 절 미항사를 비롯해 바위 무더기가 흘러내린 너덜경, 고목이 울창한 숲길, 다도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 등 걷기 여행의 묘미가 가득해 지난해 11월 개통 이후 전국의 트레킹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달마고도 걷기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달마고도 둘레길

와 한국관광공사의 ‘2018 봄 우리나라 걷기여행축제’에 선정돼 2000만원의 국비도 지원받는다.

해남군 관계자는 “우리나라 걷기축제 선정으로 달마고도가 대한민국 명품길로

한층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도 명품길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이번 달마고도 걷기 축제에 많은 분들이 참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해남군 ‘노지채소 스마트팜 보급사업’ 선정 ICT 활용 생산성 향상 기대

해남군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노지채소작물 스마트팜 보급사업’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설원예·축산 중심으로 추진되던 스마트팜을 노지채소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센서·관수관비 장비 등 노지채소 재배와 관련된 ICT 장비를 보급하게 된다.

해남군은 배추 주산지인 산이면 일대 4개 권역, 18농가를 대상으로 노지채소 스마트팜 선도 모델을 구성한 사업계획서를 제출, 현장실사 등을 거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대상 농가에는 1ha 기준 농가당 최고 20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온도·습도·강수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장비와 관수모터, 스프링클러, 액비주입기 등 재배장비, 직접 현장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이나 PC로 포전의 상태를 확인



해남 노지 배추

할 수 있는 CCTV 영상장비 등 ICT시설 장비를 총괄 제어할 수 있는 통합제어 시스템을 보급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 대표 작물인 배추품목에 ICT시설 장비를 보급해 노

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범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앞으로 노지채소분야 스마트팜 보급사업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더 빨리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